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선한
내일의 나를 위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9 2024 Vol. 902

"아이들 보호 위해 청원서에 서명합시다"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가 7일 오전 10시에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기독일보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가 7일 오전 10시에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에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한인 교계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 부모 권리 보호, 2.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보호. 3. 미성년자의 화학적·외과적 성전환 금지, 4. 부모의 알 권리 회복, 5.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위해 필요하다.

본부 측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비전 캐스팅을 한 강순영 목사(JAMA 2대 대표)는 "새크라멘토 의회가 다시는 이런 악법을 세우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주민발의안을 통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장보고를 한 유수연 위원장(ABC교육구 위원회)은 "지금은 문화 전쟁,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공산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회개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기도의 불이 각 교회에 붙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명운동에 다 동참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명 방법을 안내한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2011년에 SB48(동성애 의무교육법) 저지 서명운동을 펼쳤음에도 나중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뒤집혔었다. 이번에 무효표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명 전략 보고를 한 강태광 목사(웰드쉐어)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믿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비전 운동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등록 안내를 한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서명만 하면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면서 "방관의 죄, 무관심의 죄가 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은 죄책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부에 따르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하는 서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4월 13일까지 TVNEXT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토마스 맹 기자

➔ 4면에서 계속

급변하는 의료윤리, 종교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커



ⓒOlga Guryanova/ Unspalsh

급변하는 미국 내 의료 윤리가 종교 자유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최근 게재됐다. 이 글은 종교자유연구소(Religious Freedom Institute) 소장 에릭 패터슨(Eric Patterson)과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네이선 버클리(Nathan Berkeley)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칼럼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윤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치료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로 몰두했다"라며 "오늘날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저자는 "의료윤리 논쟁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구할지 혹은 연장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추세는 생명을 조기에 끝내는 것과 건강한 몸을 손상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며 "둘 다 개인의 자율성에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지며, '동정심'이라는 구호 아래 기만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낙태부터 조력자살, 안락사, '트랜스젠더' 수술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대학 철학 강의, 언론 보도 등에서 의료 윤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탐구해왔다. 이것은 소위 '구명정 생존자'라는 사고 실험에서부터 실험 의학 연구에 인간 피험자를 사용하는 정당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기초적인 질문이었다"며 "하지만 낙태로 인한 배아 및 태아 줄기세포의 사용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생명 보호에 대한 왜곡된 정당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칼럼은 "마찬가지로, 인간 실험, 약물 실험, 심지어 명백히 유해한 시술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은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보존, 연장 또는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 낙태 논쟁에서도 그러했다"라고 썼다. 김유진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이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오는 26-27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또감사교회에서 열린다. 최근 LA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왼쪽부터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임윤택 박사. ⓒ기독일보

또감사교회서 26~27일(월~화)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오는 26-27일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또감사교회(최경욱 목사)에서 열린다.

저자 김인식 목사는 현재 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목사로, 킹덤월드미션 대표로 활동하면서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김인식 목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구절 혹은 한 단어에서는 깨닫는 바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체 흐름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과 계획과 의도, 방법을 알게 될 때 더욱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월터 카이저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책으로 정리가 되었다. 성경의 키워드가 크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300번 이상, 예루살렘이 1,000번 이상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기에 보는 각도가 중요한데, 성경대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창세기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김 목사는 “타락의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라인에서 정리해 봤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성경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고 했다.

세미나는 무료이고 신청 마감은 20일까지이며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점심과 강의안(PDF) 및 저서가 제공된다.

문의: 김웅자 사모 818-825-1764. glovic(카톡ID). 토마스 맹 기자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버뱅크 ANC 기쁨의 교회 창립



지난 4일 주일 오후 2시에 ANC 기쁨의교회가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ANC 기쁨의 교회(이재용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꿈꾸며 남가주 버뱅크 지역에 세워졌다.

지난 4일 주일 오후 2시에 드려진 예배에는 남가주에 닥친 추운 겨울 폭풍에도 불구하고 ANC 선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인랜드 ANC교회와 멀리 베이커스 필드 ANC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해 기쁨의 교회 창립을 축하했다.

이재용 담임목사는 “ANC 온누리교회 헌신으로 ANC 기쁨의 교회가 버뱅크 지역에 세워지고 창립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 목사는 “많은 비가 내림 또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깨달았다. 버뱅크 지역에 기쁨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재용 목사의 인도로 김기철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ANC 챔버팀의 특별연주 후에 이재용 목사가 교회소식과 함께 같이 사역하게 될 오진성 목사와 오봉신 사모를 소개했다.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 담임)가 막4장 3-32절을 본문으로 “겨자씨 한 알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한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게 심기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한 영혼에 있다.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수 많은 영혼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C 온누리교회 목회자의 특별찬양에 이어 베이커스필드 ANC 담임 박성호 목사가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제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사했으며, 인랜드 ANC 담임 윤창률 목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 큰 기쁨이 된다. 영혼을 먹이고 세우는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다. 버뱅크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세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는다”고 축사했다.

버뱅크 기쁨의 교회는 700 N Glenoaks Blvd. Burbank,CA 91502에 위치하며,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금요기도회는 저녁 7시 45분에 드린다. T:818-618-0291. 조셉 리 기자

디모데 목회 훈련원 목회자 세미나



베델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및 부목사를 대상으로 목회 세미나가 2/19-20(월, 화) 오전 10-오후 3시에 열린다.

강사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5년간 사역한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 디모데 목회 훈련원 원장, 총신 졸업, 웨스터민스터 졸업)이며, 1) 바울의 영성, 2) 바울의 목회 철학, 3) 설교 구성과 전달, 4)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 5) 목사의 위기 관리, 6) 평신도가 본 목회자 상, 7) 새신자 관리에 대해 강의한다.

등록비는 없으며 점심 식사, 레위기 강해집, 선물을 제공한다.

일시: 2/19~2/20(월~화) 오전 10:00~오후 3:00

장소: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문의: 이용걸 목사(267-300-4740)

세리토스선교교회, 동포 음악의 밤 및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

김포청소년 오케스트라 초청 **‘2024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 행사가 2/10(토) 오후 6시에 세리토스선교 본당에서 개최된다. OC장로협의회가 주관하고 OC한인회와 OC교계가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테너 오귀영, 소프라노 지경, 피아니스트 김창달, 오렌지 미션 콰이어가 출연한다.

세리토스 선교교회는 2월 11일 1부, 2부 예배 때 실크웨이브미션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영 선교사를 초청해 창립 39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주소: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나를 바꾼 한 구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아대책, 나성한미교회서 CEO 출신 유원식 회장 간증집회
인생의 후반부에 든 질문,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한국 교회가 외면 받게 된 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간증하고 있는 유원식 회장. ⓒ기독일보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나성한미교회(홍충수 목사)에서 4일 오전 11시에 간증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증한 유원식 회장은 현재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전 한국오라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더 콜링 콘서트'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미주 한인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준비됐다.

유원식 회장은 지난 33년 동안 IT 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17년 동안 대표이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균 이상의 경제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소개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그렇게 30여 년을 생활해 오면서 인생의 후반에 들어오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하게 됐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야곱이 창세기 47: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다. 저 또한 삶 속에서 이런 험악한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지난해 9월 통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에 69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미국에서만 120여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사람마다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다"

유원식 회장은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가장 난처하다고 한다. 그는 1986년 1988년생 두 아들을 낳고 키웠다.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평범하게 신앙 생활을 해온 가장이었다.

그는 "어느날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안과를 데리고 가서 몇 가지 검짐을 해보더니 큰 병원에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뇌종양으로 판명을 받게 되었다. 눈과 눈 사이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그런 일이 닥치니 현실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17시간의 수술을 하면서 두개골을 열고 뇌수술을 하고 봉합을 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아이의 오른쪽 신체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했다.

유 회장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재활훈련을 시키는 와중에 2년 후에 다시 병이 재발되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지만 아이는 회복이 되지 않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여 동안 입원을 했다. 가망이 없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질문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때 새벽기도 및 철야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보냈다. 어느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계단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성구가 마음에 박혔다. 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곧 데리고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기도를 함께 있던 전도사 대신 유원식 회장이 자청해서 했다. 마지막 기도는 아빠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때 그는 "아들과 함께 한지 11년밖에 안 되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2년여 동안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 품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유원식 회장은 "아이 학교에 가서 소지품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저희 집 가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이다. 학교에서 가훈을 쓰게 해서 아이가 쓴 것을 보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을 썼더라.

스케치북에 가득 쓴 것이 자기 죽음에 쓴 것이었다. 아이가 떠나기 전에 매일 성구를 돌아가며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때 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지금 저희 집 안방에 걸려있다. 그리고 아내와 다짐했다. 아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앞으로 떳떳한 엄마와 아빠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자고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세 가지를 모른다고 한다. 첫 번째 언제 죽는지, 두 번째 어디서 죽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인간은 1 반드시 죽고, 2 혼자 죽고, 3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50대 중반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이다. 스톡옵션을 받았고, 강남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뭔가 있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유 회장은 기아대책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간 말라위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공항에 내려서 현장을 향해 가는데 가는 중간에 충격을 받았다. 오뎅 꼬치 같은 것을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파는데 자세히 보니까 쥐 튀김이었다. 예쁘게 요리한 것이 아니고 머리와 꼬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파는 것이였다. 쓰레기 공원에 트럭이 오면 아이들이 몰려든다. 쓰레기를 뒤지는데 병든 닭을 주워서 내장을 꺼내 버리고 삶아서 먹는다. 아이들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1불 약값이 없어서 방치된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갖 질병에 걸리는 것은, 비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에 태어나서 누리는 삶은, 단순히 좋은 사회에 태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난한 아이들은 단지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예방할 수 없어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어려움을 중단시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예전에는 20%을 웃돌았는데 지금은 14%대로 줄었다고 한다. 20대는 3%가 안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원식 회장은 성경책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밑줄을 긋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에 밑줄을 긋는 것은 나눔과 봉사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35달러이면 한 달 동안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학생들이 받는다. 그것 외에 우물 파기, 교회 건축, 화장실 건축 등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가 공부하고 나서 수의사가 되어 가축을 돌보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마지막 1/3의 삶은 구제와 선교, 나눔과 봉사만이 나머지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썼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간증을 마쳤다.

기아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71년에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한국에선 1989년 10월 24일 NGO 창립 이사회를 개최해 1990년 교회를 통해 최초의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703-473-4696, shchung@fh.org.





‘은혜’의 손경민 목사, ‘천년을 불러도’의 주리, LA서 콘서트

2/9(금) 동신교회, 2/10(토) 주님의 영광교회, 2/11(주일) 베델교회

‘은혜’, ‘행복’, ‘감사’, ‘주의 은혜라’, ‘충만’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CCM 가수 손경민 목사, ‘천년을 불러도’의 주리, 이윤화 찬양사역자 등이 ‘나눔 On 희망 On 콘서트’를 위해 남가주를 방문했다.

2024년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상반기의 첫 행사로 오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9일 오후 7시), LA주님의영광교회(10일 오후 7시), 얼바인베델교회(11일 오후 7시) 3곳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어 2월 13일(화)에는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나눔 On 희망 On콘서트’에는 유투브 조회수가 3,000만회를 육박하는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손경민 목사는 “살아온 환경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 깨진 가정과 가난 속에 자라며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지만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다” 고 말하며 “어려움이 없고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재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행복이라 믿는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에 대해 “많은 분들과 그 행복의 비결을 나누고, 현재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너머의 이들에게도 꼭 전해지길 소망한다” 는 기대를 밝혔다.



손경민 목사, ‘천년을 불러도’의 주리, 이윤화 찬양사역자 등이 LA에 콘서트를 위해 남가주에 방문했다. ⓒ기독일보

주리 찬양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뿐인데 필요한 곳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더 큰 위로를 받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콘서트에서는 집회하는 각 교회에서 성가대와 함께 오프닝송과 연합해서 경배와 찬양이 진행된다. 찬양 사역자 주리와 이윤화 선교사, 손경민 목사가 각각 대표곡들을 찬양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은혜라’를 연합해서 찬양하게 된다.

손경민 목사는 한국에서 여러 찬양 간증집회 인도와 침신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윤화 선교사(일본)는 최근 지진이 난 일본 노토반도에 방문해서 피난민들을 위로하고 시간을 보냈으며, 일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팀은 지난 5일에 남가주에 방문했다.

미주복음방송의 ‘나눔On 프로젝트’는 펜데믹이 발발했던 2020년부터 시작돼 지난 2023년까지 4년간 총 75만불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첫 나눔은 이웃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주요 긍휼단체를 지원하는 일로 시작했고 점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아이티 난민, 튀르키에 재난 지원 등으로 지경이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나눔On 프로젝트’는 오는 2월에 자선콘서트와 공개모금생방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아이티 모두 큰 재난과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돌봐야 할 우리의 한 몸 같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도 행복도 주고 받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콘서트는 자선콘서트인만큼 후원티켓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나눔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번 콘서트 후원티켓은 $20에 구입할 수 있다. 티켓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문의 구매가 가능하며,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소재 9곳의 기독교 서점과 교회 서점 등에서 판매된다.

또한 2월 1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2024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에서는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이 참여해 생방송을 이끌어 갈 예정이고, 이 날은 전화나 온라인 결제를 통해 특별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아이들 보호 위해...〉에 이어서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서명 운동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서명한 용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해야 함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으면 안 됨 ▶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함. ▶절대로 P.O. Box는 안되며, PO Box 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함. ▶ 수정액(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금지.

청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TVNEXT의 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 로 보내면 된다. 한편, 기도대회에서는 신승훈 목사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겔 33:1-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회개의 촉구, 중보기도의 사명자 헌신, 미국과 남가주의 부흥, 주민발의 성명운동, 미국 선거, 전쟁 지역의 평화, 선교지와 선교사의 축복, 대한민국 축복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3부 시간에는 주민발의 서명운동 설명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의: TVNEXT.org@gmail.com, 윤우경 권사 (714-873-9164 psnewsdesk@gmail.com)

➔ 1면 기사 〈급변하는 의료윤리..〉에 이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은 낙태가 비극적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문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낙태가 정당화되려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근거는 부족하지만, 생명을 부정하는 대신 건강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칼럼은 “하지만 오늘날 의료 윤리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생명에서 죽음의 문화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언어의 변화, 파괴적인 수술 절차,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공중 보건 우선순위 등에서 나타난다”라며 “다운증후군 태아나 노인 환자와 같은 무수한 유형의 조기 사망에 관한 수술과 완곡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또한 “좌파에서는 더 이상 낙태가 비극이라고 주장하거나, 낙태가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에게 입히는 심리적, 생리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실제로 우리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외치라!”고 촉구하는 공공 캠페인과,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이라고 선언하는 기괴한 시대에 들어섰다”고 했다.

특히 “이 죽음의 문화는 장애인, 중증 질환자, 노인들에게 향한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기이하게도 ‘임종의료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법에 따라 국가 보건 시스템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서비스가 노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끔찍한 결과를 보았다”고 했다.

저자들은 “노인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존중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선조들의 공헌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이룬 것과 별개로, 그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기리며, 그들을 자연스럽게 끝까지 돌볼 것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18차)

2021년 코비드 기간에 “성경, 빅픽처를 보라!”가 출판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차례 목회자(선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 되었습니다
(포항 신학교 평촌 몽골 이스라엘 브라질 뉴욕 뉴저지 아틀란타 등). 2023년에는
7차례 세미나(한국, 중국인, 유럽, 인도, 이스라엘, 메릴랜드 등)가 있었고 2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LA지역에서 제18차 저자세미나를 가지려 합니다.
꼭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목사 드림

- **대 상** :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 **일 정** : 2024년 2월 26일(월)~27일(화) 9:30~5:00
- **장 소** : 또감사교회 (최경욱 목사) T.(323)225-9191
  440 Shatto Pl, 4th Fl. Los Angeles, CA 90020
- **문 의** : 김웅자 사모 T.(818)825-1764 glovic(카톡 ID)
- **등 록** : 카톡/문자/mixthus@gmail.com
- **신청마감** : 2월 20일(화)까지(선착순 50명) (등록비:무료)
  (점심 제공/ 강의안(PDF)과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증정


김 인식 원로목사
웨스트힐 장로교회



센터메디컬그룹

푸른용의 해

새해에는 미주 한인사회에
더 많은 웃음이, 건강이, 행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센터메디컬 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이 빛나는 한해가 되길.

센터메디컬그룹 올림.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세상은 우울 · 절망만 주입… 행복할 이유 훨씬 많아”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저자 류인현 목사. ⓒ기독일보

혹등고래는 춤을 즐기고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한다. ‘바다의 수호천사’로 불릴 만큼 온순하고, 주변 해양생물이나 사람을 구하기도 한다. 깊은 바다에서 다이버를 만나면 몸을 뒤집고 지느러미를 흔들어,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끝내 모든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심해로 내려가 죽고 나면, 그 사체는 심해 생물들에게 먹이가 된다.

뉴욕 뉴프론티어교회 류인현 목사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혹등고래를 보면서,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서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를 썼다. 혹등고래를 좋아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세상 속에 조금 느리더라도 혹등고래처럼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21일간의 묵상’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류인현 목사에게서 참된 행복과 청년 목회 이야기를 청취했다.

▶첫 책은 거북이, 이번 책은 혹등고래입니다.

“두 동물 모두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둘 다 바다생물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웃음). 교회 청년이 엄청나게 큰 혹등고래 그림을 그려 줘서 방에 걸어놨는데, 팬데믹 때 줌을 쓰다 보니 뒤편의 고래 그림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림이 너무 멋있다고.

10년 전 냈던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동화 속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크리스천 관점에서 재해석해, 거북이 편을 드는 내용입니다.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꾸준해서 이겼다고 하지만, 거북이는 애초에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경쟁이 아니라, 느리지만 완주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토끼를 이길 생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롱런(Long-run)’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게임이 주어졌을 때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기를 완주하겠다’, 자기 삶을 사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빠른 도시 사회에서 누군가를 이겨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대신, 내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느린 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토끼는 어땠습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졌다가, 결국 슬럼프를 겪으면서 나태해졌죠. 꼭 오늘날 현대인들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북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소명과 정체성으로 자기 삶을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느린 것 같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10년 후인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 같네요.

“당시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취직이 늦어지거나 해서 불안하고 조급하던 분들이 ‘시작이 늦더라도 뒤처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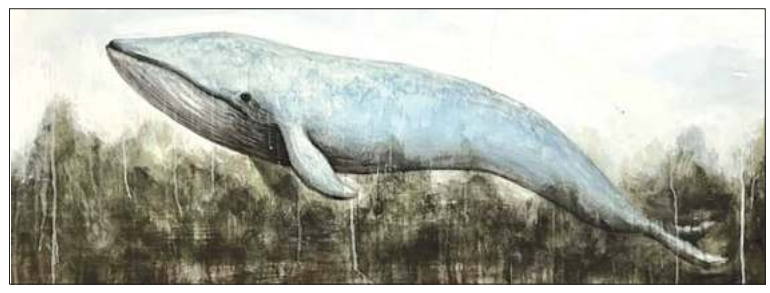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는 잠언 말씀(21:5)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대조한 부류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입니다. ‘부지런의 반대는 조급함이구나. 조급해하지 말자. 대신 부지런해지자’.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당시 한국에서 ‘헬조선, n포 세대’ 담론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런 담론에 휩싸여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기엔 이른 나이 아닙니까. 초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육계와 사회 분위기가 1등 지향적, 성공지향적으로 흘러왔던 것이 아직도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만 해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은메달 따고 우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이 지금 기성 세대, 50-60대 리더들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여전히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하죠. ‘1등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1등을 하라고 그러냐? 공평한 출발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故 이어령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처럼,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다같이 경쟁해서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원과 같이 함께 모였다가 각자의 경주를 향해 퍼져 나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1등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북이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고유의 소명과 칼라가 있으니 거북이는 토끼처럼 빨리 달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을 따라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의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교회 성도였던 신문섭 작가가 류인현 목사에게 선물했던 대형 고래 그림. ⓒ저자 제공

목회자도 다 바울처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바울이 돼야 할 것 같지만, 바울도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소명은 다를 것입니다. 주기철·손양원·한경직 등 훌륭한 목사님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그분들을 따르려 해야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조차 성공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세속적 야망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토끼처럼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돈이나 성(性), 권력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토끼처럼 롱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공지향적 목회가 가져오는 치명적 약점이 아닐까요. 교회들도 경쟁하고 있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요.”

▶목사님의 소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33세에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박사 과정까지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싶었는데, 박사 학위가 떨어지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 청년 목회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벌써 17년 지났네요.

저는 기질상 토끼 같았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빨랐어요. 그런데 17년간의 청년 목회를 통해 조급함을 많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거북이를 닮아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청년들을 동원하고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여유롭게 대해주고, 기댈 수 있는 ‘품는 목회’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학 생활에 지치고 경쟁 사회에 지친 뉴요커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치열함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 열심히 해서 고지를 점령하라는 메시지보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이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지칠 때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등으로 메시지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30-40대에는 ‘으쌰으쌰’ 하는 메시지가 많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청년들에게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얼마나 힘드니’ 하는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늘어났습니다. 양쪽의 밸런스도 필요하겠지만, 교회가 아니면 위로나 공감의 메시지를 들을 곳이 없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부모 마음으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뒤처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줄 곳이 없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입니다. ‘너무 채근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 주면서요.”

▶뉴욕이란 어떤 곳인가요.

“뉴욕의 가장 큰 매력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직업도 출신 배경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곳이죠.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고요. 그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과 부부들을 1만여 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 ‘인생 공부’를 했달까요(웃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욕이란 도시 자체가 2백여 인종이 모두 와서 살고 있으니까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해서, 다양한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 목회, 특히 1.5세 청년들과 함께해 오셨는데요.

“성경에도 1.5세들이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2개국어를 했죠. 이곳은 본국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타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소위 ‘디아스포라 신학’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민 교회 성도나 청년들은 디아스포라 역할이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계속〉

이대웅 기자



태양광, 솔라!!

BTS SOLAR DESIGN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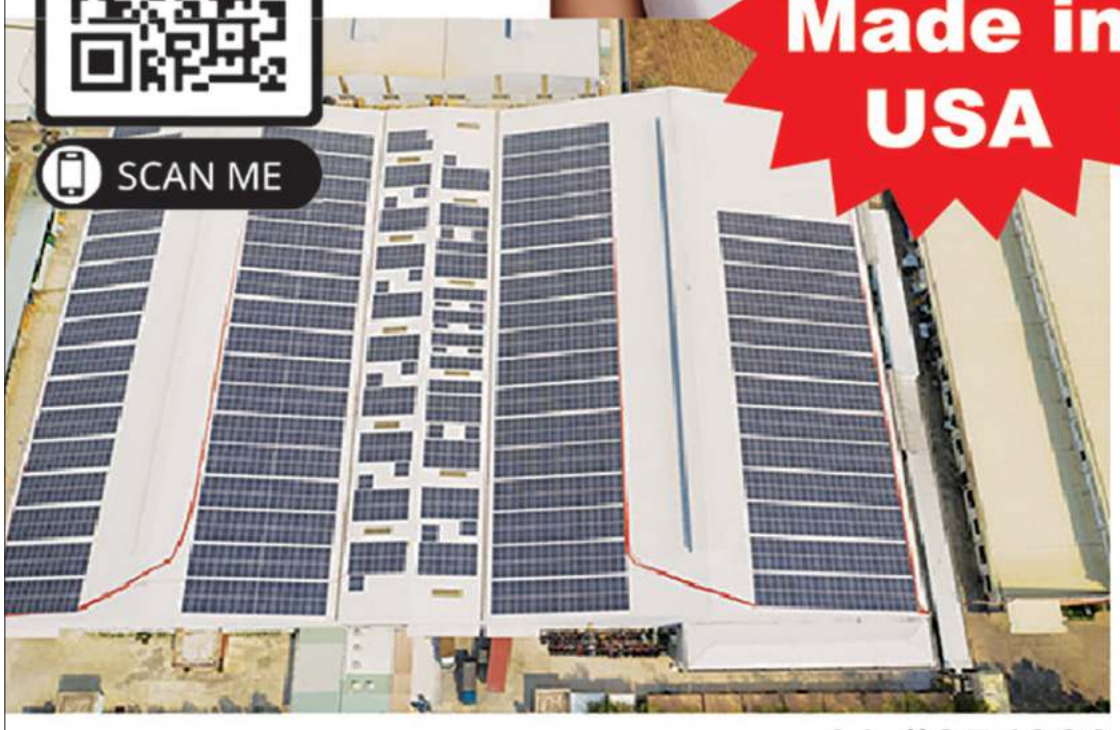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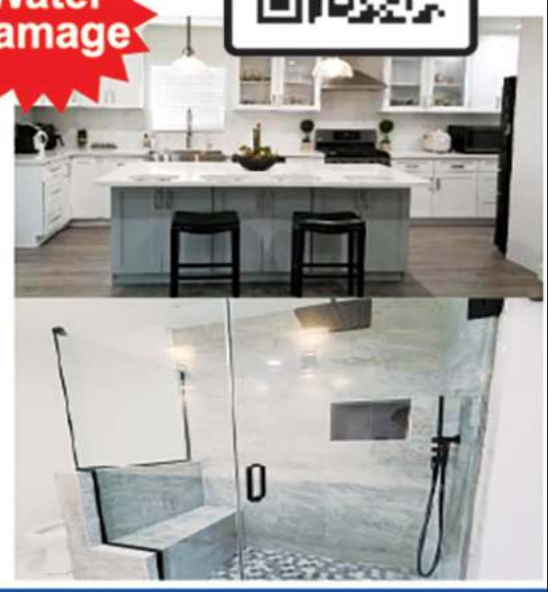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 3

건강한 목회 리더십을 이어가는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남가주에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충현선교회(국윤권 목사)는 아름답게 세대교체를 이어가고 있다. 1985년 8월에 교회가 창립된 이래 건강한 목회자의 세대교체를 이루며 성장과 부흥을 이뤄내고 있다. 충현선교교회는 1대 정상우 목사에 이어, 2대 담임 목사인 민종기 목사(현 KCMUSA 이사장)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고 3대 담임 목사인 국윤권 목사가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충현선교교회를 3대 담임목사로 섬기는 국윤권 목사는 남가주 출신이다. 소명을 확인하고 신학교에 진학한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경험한 후에 다시 남가주로 돌아왔다. 교회 생활과 더불어 성장한 국목사는 천상 목회자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가슴으로 교회와 성도를 품고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다.

국윤권 목사는 4분의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는다. 우선 목회자이신 아버지를 통해 섬김의 가치를 배웠다. 아버지이기에 가깝게 지냈기에 갈등과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님이 목회자로 보여주신 모범이 국목사의 삶과 사역 곳곳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국 목사가 큰 영향을 받은 두 번째 목회자는 시카고에서 만난 전은상 목사님이다. 고신 교단의 저명한 원로 전은상 목사님은 삶의 영성과 경건의 향기가 넉넉하신 분이다. 전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은 국목사에게 큰 축복이다.

그가 세 번째로 경험한 목회자는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다. 송 목사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어린이 사역부터 노인 사역까지 교회 모든 사역을 경험했다. 송상철 목사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설교를 배웠다.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그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권준 목사를 만났다. 권 목사의 조화로운 리더쉽,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실제 목회를 배웠다. 성장기, 시카고 사역, 애틀란타 사역의 경험을 종합하는 목회 실습과 권준 목사의 멘토링으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는 충현선교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용 덕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충현선교교회를 향한 신뢰와 자부심도 크다.

청빙절차를 마치고 충현선교교회를 다시 보면서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교회의 저력과 성도들의 성숙함을 확인하고 더 뜨겁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리라는 다짐으로 취임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은 후 약 9개월간 전임 민종기 목사와 공동목회를 했다. 이 9개월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 우선 국목사는 민종기 목사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든든한 신뢰를 쌓게 되었다. 둘째는 충현선교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남가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목회자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로 이 9개월의 공동목회를 통해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와 자신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젼을 얻었다. 담임 목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가진 잠재성과 더 일해야 할 부분을 발견한 기간이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담임목사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야할 길을 찾았다.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국 목사는 세 가지 비전을 품는다. 첫째로 충현선교교회가 다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한인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를 위해 양보와 헌신 그리고 겸손한 섬김이 필요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처럼 든든하고 복된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둘째로 인생의 종착역이 행복한 생명을 세우는 목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종착역을 위해 달린다. 종착역에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그는 어른 세대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노인 사역에 남다른 관심도 있다. 인생의 종착역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종착역이 행복한 삶은 노년의 삶에 사랑과 돌봄을 느낀다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로 종착역이 행복한 삶은 다음 세대가 복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셋째로 다음 세대에 건강한 영성을 전수하는 목회를 꿈꾼다. 현재 상태로 보면 한인 2세가 한인교회의 영적 계승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2세의 영적 상태나 문화는 미국교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한인교회의 영성과 문화를 공유하고, 한인교회의 영적 전통을 계승할 1.5세와 2세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인교회의 영성과 영력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다음 세대에서도 섬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비전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계획을 갖고있다. 우선 여러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기도하며 준비한다. 1.5세로 영어에 능통한 그는 한어사역안에 영어부 사역의 강화를 통해서 젊은이를 양육하는 것도 기도하며 준비한다. 이런 점에서 충현선교교회 EM(현영어부)사역은 다민족을 품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을 고민한다. 그는 이 비전이 허망한 꿈이 아니라 실천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윤권 목사는 칼 스테이트 롱비치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rinity Evangel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 Div)와 신학석사(Th. M.)을 졸업하였다. 시카고와 애틀란타 지역에서 부교역자로 목회 실습을 한 후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에서 부목사로 다양한 목회 경험을 했다. 그는 권준 목사의 추천으로 미주 아버지학교 지도목사로 미주 전 지역 아버지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다.

강태광 편집위원(월드쉐어 USA 대표)

베델교회 블레싱 USA 캠페인 이인삼각



복음의전함이 제작한 광고 〈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베델교회



2월 4일 베델교회 주일예배 시간에 고정민 장로가 복음의전함의 사역 대해 설명했다. ⓒ베델교회

한국의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이 미주 지역에서 2만 명의 재미 성도가 복음 명함을 통해 재미한인 200만명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블레싱 USA'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귀중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다.

이 캠페인과 함께 얼바인 베델교회가 이인삼각(二人三脚) 달리기로 동참했다. 베델교회는 매년 부활절을 새생명축제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라는 표어로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하고 교회에 초대했다, 올해는 복음명함을 제작하여 VIP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2월 4일 주일 예배 1-3부에서는 김한요 목사의 설교에 이어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복음의전함의 비전과 복음 전파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해 베델교회 성도들은 전도 대상이 될 VIP를 정하고, 복음의 중요성과 전파의 사명에 대해 새롭게 동기부여를 받았다. 이날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로 인해 베델교회의 코트야드는 복음명함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김민선 기자



러의 우크라 침공 이후 교회 박해 최소 76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에서 최소 76건의 종교적 박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 의회 인권국장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서 고발 자의적 구금·강간·고문·살해 러시아군, 가장 먼저 교회 파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에서 최소 76건의 종교적 박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회 인권국장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1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침례교, 오순절교, 재림교를 포함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루비네츠 인권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러시아군은 모든 복음주의 성도들을 '미국의 스파이', '종파주의자', '러시아정교회의 적'이라 부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면서 "러시아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했다.

루비네츠는 "러시아 침공 이후 76건의 박해 사례가 알려졌다"며 "러시아 군인과 관리들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9명의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를 살해하거나 체포했다"고 했다.

그는 "점령자들은 자의적 구금, 강간, 고문, 살해와 더불어, 총격을 가하는 흉내를 내고 가족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한다. 피해자들은 물이나 음식, 심지어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돼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예배 중 난입해 교회를 폐쇄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미하일로 브리친 목사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의 모든 교회가 폐쇄됐다"고 말했다.

미국 유라시아 선교단체 '종교자유이니셔티브'(Religious Freedom Initiative of Mission Eurasia)의 책임자인 브리친 목사는 "나와 같은 대부분의 신부와 목사들은 협박, 협박, 굴욕, 구금, 구타, 추방을 당했다"며 "일부 신부와 신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시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살해당했다"고 했다.

이 단체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침공으로 206개의 복음주의 기도원을 포함해 최소 630개의 종교 구조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종교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이념적 기반 중에는 현재 종교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14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운동이 발발한 후,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종교 공동체가 잔인한 박해를 받았다"며 "유일한 예외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소속된 우크라이나 정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면책특권을 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점령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크라이나 그리스-가톨릭 교회,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을 적의 요원이자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 정보국의 스파이로 인식했다"고 했다.

브리친 목사는 "정상회담 참석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종교적 박해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러시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전혀 없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 하에 점령 지역이 해방되고 반환돼야만 점령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집에서 기도회 연 베트남 기독교인 '징역 4년 6개월'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베트남의 한 몽타냥드(Montagnard·고산족) 기독교인이 '분리 및 선동'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베트남에서 종교 관행과 국가 정책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는 특히 몽타냥드 소수민족과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중앙고원복음주의그리스도교회(Central Highlands Evangelical Church of Christ) 설립자인 아가(Aga) 목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교회 성도인 네이 Y 블랑(Nay Y Blang·48)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법적 대리인도 없이 해당 선고를 받았다"며 "이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면 이번 재판이 명백히 공정하고 투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재판에는 정부 관계자만 참여했다"며 "이는 정부가 그에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형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이슈에 대해 변호하거나 논쟁할 변호사가 왜 없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의 유죄 판결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인한 것이었다. 베트남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종교 모임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블랑이 속한 몽타냥드 공동체는 주로 기독교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베트남 정부와 오랜 기간 충돌해 왔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블랑이 과거에 유사한 혐의로 투옥되고 벌금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신앙을 가질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CSW 설립자인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대표는 "블랑의 청문회에는 적법한 절차가 부족했고, 베트남의 종교 자유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는 단순한 기도 행위를 자신들의 권력과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최근 상황은 베트남의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베트남 전역의 종교 및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삼는 광범위한 박해의 일부이며,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8: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멸절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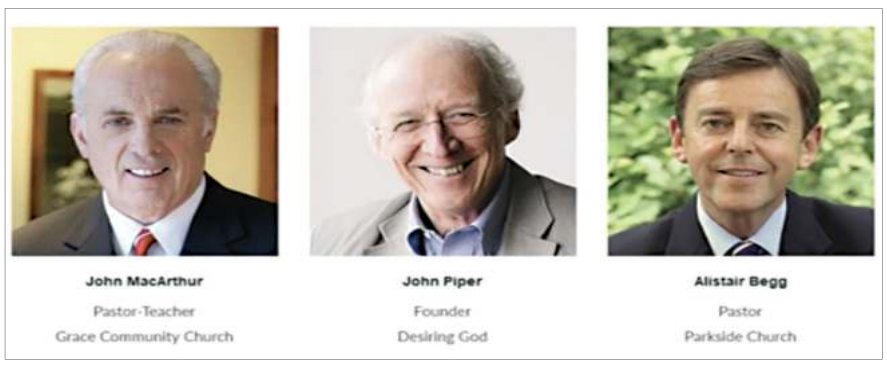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트랜스젠더 손자 결혼식 참석하라" 조언한 美 목사, 반발 직면



쉐퍼드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알리스터 배그 목사가 3월 컨퍼런스의 연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shepherdsconference.org

지난해 팟캐스트에서 기독교인과 동성결혼에 대한 조언을 언급한 미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라디오 진행자인 알리스터 배그(Alistair Begg) 목사가 다른 사역에서도 제외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사역인 쉐퍼드 컨퍼런스(Shepherd's Conference)의 웹사이트에서 배그 목사의 약력이 삭제됐다. 베그 목사가 성소수자로 확인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지 묻는 할머니에게 조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쉐퍼드 컨퍼런스 웹사이트에는 배그 목사가 존 맥아더 목사와 '디자이어링 갓'(Desiring God) 창립자인 존 파이퍼 목사의 뒤를 이어 연사 중 한 명으로 등록돼 있었다.

오는 3월 6~8일로 예정된 쉐퍼드 컨퍼런스의 주제는 '진리의 승리'다. CP는 "배그 목사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배경에 누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에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그 목사는 또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협력해 운영되고 존 맥아더 목사가 총장으로 봉사하는 '더 마스터스 세미나리'(The Master's Seminary)의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초청 강사이기도 하다. 신학교에서 베그 목사의 역할이 쉐퍼드 컨퍼런스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파크사이드 교회의 담임목사인 배그 목사(71)에 대한 반발의 가장 최근 조치다.

베그 목사는 미 전역 1천8백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라디오 사역 '트루스 포라이프' 진행자였다.

이 논란은 작년 9월 배그 목사가 그의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새 책 '기독교 선언문'(The Christian Manifesto)에 관한 토론 중 한 발언에서 발생했다. 배그 목사는 팟캐스트에서 한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가 트랜스젠더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해당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손자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신앙을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손자 분이 삶에서 내린 선택을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라며 "나는 '그렇다면 좋습니다. 손자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당신이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사주길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배그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문화가 교회에 대해 가진 "비판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불참은 그들로 하여금 '이들(기독교인)은 내가 항상 생각했던 대로다. 판단하고, 비판적이며, 어떤 것도 인정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강화할 뿐"이라고 조언했다.

배그 목사의 발언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 다시 등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의 라디오 사역인 '미국가족라디오'(AFR)는 '트루스포라이프'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경 기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종교 자유 침해 급증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RC) 종교자유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6개 서방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최소 16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종교 자유 침해 사건에는 공개 설교와 기도에 대한 체포와 벌금, 성경에 근거한 신앙 표현에 대한 처벌, 코로나19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목회자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종종 세속 단체보다 종교 단체에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서구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 문서,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이용한 해당 연구는 기독교 관습 및 표현에 대한 정부 제재 조치의 추세를 보여 준다.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은 미국에서 최소 58건, 캐나다에서 36건, 영국에서 43건, 그리스에는 6건으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독일, 몰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

FRC 회장이자 전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인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기독교인에 대한 서구의 적대감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앙을 실천하는 개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조치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교사인 제시카 타피아(Jessica Tapia)가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한 혼란' 및 '이성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욕구'를 부모에게 숨기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교육구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2023년 2월 해고됐다.

캐나다에서는 데릭 라이머(Derek Reimer) 목사가 성소수자 행사에 2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2023년 3월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라이머는 공공 도서관에서 열린 드래그 퀸(보통 여장을 한 게이를 지칭하는 말) 행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소란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FRC 종교자유센터 소장인 아리엘르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는 2022년 유럽 전역에서 신체적 폭행과 살인을 포함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측소의 조사 결과, 이러한 범죄들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들 사이에 위축 효과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과 종교적 표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은 묵념 기도를 불법화하는 낙태 시술소 주변의 '완충지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독교인의 자유를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에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해 일반적인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표현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트랜스젠더 절차를 훼손하는 부모, 목사, 교사를 잠재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강혜진 기자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 10년간 회원 28만명 이상 감소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UCC) 총회.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UCC)

미국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UCC)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8만 6천 명 이상의 회원이 감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UCC 분석, 연구 및 개발 데이터 센터(CARD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교단은 28만 6610명의 회원과 551개 교회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UCC는 4794개 교회에서 4603개 교회로 감소하면서 회원 수는 약 77만 3000명에서 71만 1000명으로 줄었다.

2022년 회원 수는 1960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는데, 당시 이 교단은 회원 수 약 224만 명으로 현재 규모의 세 배 이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128개 교회가 UCC 교세 통계에서 삭제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85개 교회가 삭제된 것에 비해 50.6%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UCC 이사회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은 교회가 2년 동안 비활동으로 표시될 경우, 총회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비활동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기록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가 이 정책이 시행된 첫 해여서 향후 몇 년 동안 삭제되는 비활동 교회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 년간의 데이터 수집이 삭제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UCC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당한 감소를 인정하며, 2005년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이후 "매주 거의 3개의 교회를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CARDD 소장인 에리카 돌홈프는 최근 성명에서 보고서가 "자신의 교회가 특별한 강점을 가진 곳을 식별하고, 번영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영감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돌홈프는 또한 소규모 UCC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역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과는 작은 교회의 특별한 강점을 강조한다. 작은 교회들은 서로 긴밀하고 높은 참여를 보이는 공동체인 경향이 있다"며 "교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들은 대게 교인 수 대비 현장 예배에 참석자가 가장 많다"고 했다.

또한 "예배 참석자가 모두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계산은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내에서 가장 높은 참여도를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UCC 회원 중 83.1%가 백인이며, 4.8%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4%가 아시아인 또는 태평양 섬 출신이며, 1% 미만이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호 지역은 UCC 회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위스콘신,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한다. 2위는 중부 대서양 지역(20%), 3위는 뉴잉글랜드 지역(19.7%)으로 나타났다. 서부 지역은 서부 해안을 포함해 콜로라도, 몬태나, 뉴멕시코, 와이오밍까지 이르며, 회원 수는 9.4%, 교회 수는 13.1%를 차지한다.

작년 7월, UCC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2023년 총회에서 카렌 조지아 톰슨 목사를 첫 여성 회장겸 총무로 선출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예수 혁명'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다윗의 집', 아마존 프라임과 계약

다윗의 이야기 다뤄...아마존 프라임 계약, 더 원더 프로젝트의 이정표

성경 시리즈 '선택받은 자'(The Chosen),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을 연출한 감독이 구약성서 다윗 왕과 사울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방송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달 초 아마존 MGM 스튜디오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영화 스튜디오인 '더 원더 프로젝트'(The Wonder Project)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임 비디오를 위해 새로운 성경 기반 시리즈인 '다윗의 집'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원더 프로젝트는 존 어윈 감독과 전 넷플릭스 및 유튜브 임원 켈리 메리맨 호흐스트라텐이 공동 창립했다. '선택받은 자'의 창시자이자 감독인 달라스 젠킨스는 더 원더 프로젝트의 고문이다.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성경 인물 다윗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따른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한때 강력했던 사울 왕이 몰락하는 과정을 따른다. '더 원더 프로젝트'의 존 어윈은 "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첫 번째 프로젝트인 '다윗의 집'을 통해 설득력 있는 가치 중심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시리즈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더 원더 프로젝트'의 이정표이며, 우리의 사명과 청중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회사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했다.

CP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와 TV 시리즈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7년 출시 이후 플랫폼 전반에 걸쳐 2억 명의 순 시청자를 보유한 '선택받은 자'(The Chosen)은 성경 드라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물결을 촉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시리즈의 창시자이자 프로듀서 겸 감독이자 원더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젠킨스는 CP에 "무엇이 이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팬들이 이 시리즈의 진정성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젠킨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조각상, 종이 위의 무언가, 그림 속의 어떤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성경을 읽어도 연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 드라마를 만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구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었으므로 대답은 같을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했다. 어윈 감독은 회사가 자체 배급 및 스트리밍 옵션을 만드는 동시에 자사 제작물을 주류 네트워크, 스트리머 및 영화 배급사에 판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 (714)853-4030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강훈 기자의 WeBridge 교회 탐방기

성령으로 일하는 성일교회

아픔도 겪고 나면 실력이 되고 경륜이 된다
지난 날을 이겨낸 간증 많아

성일교회(이석기 목사)는 지난 2019년 이석기 목사와 사모 그리고 12명의 성도로 개척한 교회다. 개척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를 직면했지만, 기도와 응답으로 문제들을 이겨냈다.

아직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만났다. 코로나 시기에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규정에 맞게 예배를 드렸다. 돌아보면 그때 대면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시대를 보낸 것이 참 감사하다.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다.

성일교회는 지금도 1부(08시) 예배와 2부(11시) 예배로 드린다. 두 예배를 합쳐서 약 30여 명이 출석한다. 모두 경륜과 역사를 자랑하는 든든한 신앙인들이다. 모두 이민 생활과 이민 교회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베테랑들이다. 성도들은 일찍부터 예배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한다. 성도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친교 시간은 사랑과 나눔이 풍성했다.

담임 목사인 이석기 목사도 역전의 용사다. 신학 수업 후 부교역자, 작은 교회 담임 목사, 한국육군 군종 목사 그리고 유학과 이민교회 부목사, 이런 다양한 목회 경험을 가졌고, 이민 교회에서 겪는 아픔도 경험했다. 그런데 아픔은 겪을 때는 아프지만 겪고 나면 실력과 경륜이 되고 자랑이 된다. 이석기 목사는 지난날을 이겨낸 간증이 많은 목회자다.

이 목사의 설교는 속삭이듯 전해진다. 이 목사의 설교에는 그의 깊은 묵상과 본문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이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아멘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호소할 때 아멘 소리는 훨씬 커졌다.

성일교회의 3가지 기도제목

성일 교회는 어려운 지역 사역자들과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맘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이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늘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목회하는 이석기 목사는 더 큰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석기 목사는 성일교회를 섬기며 품은 감사가 있다. 첫째,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 목사 눈에는 너무나 선한 성도다. 둘째로 부유하지 않지만, 재정적인 안정을 주셔서 감사하다. 큰일은 못해도 꾸준히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셋째,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마음껏 예배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강훈 기자



성일교회(이석기 목사)는 코로나 시기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었다. ⓒ성일교회

센터메디컬, 가든그로브 정기 건강 세미나



지난 2월 1일 가든그로브에 새롭게 개원한 센터메디컬그룹의 2호 직영병원 센터메디컬 클리닉에서 격주 화요일 로컬의 시니어들을 위하여 무료 건강세미나를 연다. 관심 있는 시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명으로 제한된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의 임유일 주치의는 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로서 앞으로 지역의 시니어들에게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매 주제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즐겁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미나가 끝나면 주치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건강에 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다과도 즐길 수 있다.

첫 번째 건강세미나는 '당뇨'를 주제로 2월 13일 화요일에 열린다. 문의는 714-904-1701로 하면 된다.

세미나 날짜 및 장소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Carson Gardens Apartments 커뮤니티 룸 (21811 Main Street, Carson, CA 90745)

베델교회 사별가정 회복 세미나 및 춘계 부흥회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3월 1일~5월 31까지 1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까지 베델교회 비전센터 조이채플에서 "슬픔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주제로 사별가정 회복세미나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40이다.

참가 문의는 강재형 집사 (949-533-4147),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에게 하면 된다. 참가가 전원 저녁 제공되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베델교회는 2월 16일(금)~18(주일)까지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를 초청해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2024 춘계 부흥회 및 셀부흥회를 연다. 이용걸 목사는 2/16(금) 저녁 7시 30분, "하나님의 은혜"(출 19:1-6), 2/17(토) 오전 6시 "찬양의 삶"(시 68:19), 2/17(토) 저녁 7시 "성화의 삶"(겔47:1-12), 2/18(주일) 1-3부에 말씀을 전한다. 김민선 기자



인랜드교회 40주년 기념 선교 컨퍼런스 개최

인랜드 교회는 2/9~11(금~주일) 파송선교사를 초청해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2024 선교 컨퍼런스를 연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며,제임스 허 선교사, 최세훈 선교사, 이성철 선교사, 주형빈 선교사, 이재욱 선교사가 강사로 선다.

집회는 금 7PM, 토 6AM, 7PM, 주일 1-4부에 있으며 컨퍼런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있다.

상실회복 모임은 2/12~5/6까지 매주 월 13주간 저녁 6:30분에 진행된다.



상실회복 모임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여 슬픔과 외로움,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모임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지원 모임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며 격려와 위로를 주는 돌봄 사역이다.

가슴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자 되기 (6)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로 된 겉옷을 가죽 띠로 질끈 묶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石淸)을 먹으며 살았다. 그의 외모와 삶의 방식이 엘리야를 연상시켰다. 외모만 보아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그의 외침이 유대광야에 울려 퍼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3:2).

여리고로 내려가는 언덕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메마른 광야가 동편으로 비스듬히 펼쳐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유대광야이다. 언덕 위에는 바위 그늘도 없다. 샘물도 없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돌이라는 돌은 모조리 부스러졌다.누가 그곳을 찾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다. 인생에 실패와 기근이 덮쳐 오면 길은 광야가 된다. 거기는 시기하며 질투할 사람도 없고 원망하며 다툴 사람도 없다. 광야는 혼자 걷는 길이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곳이다.

광야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회개의 눈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귀하고 보배롭다.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요단 강으로 내려가 세례를 주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스스로 죄 없다는 바리새인들도 내려오고, '인생살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사두개인들도 찾아왔다. 요한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광야의 조약돌처럼 부스러뜨렸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3:7-10).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도 요한이 외치는 말을 들으셨을까? 듣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3:11-12).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길을 잘못 드는 법이 없다. 후회도 없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다.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다. 요한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소리'였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물가운데로 들어가셨다.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놀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 나이까?"(3:14)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과연 그 둘은 서로 알고 지냈을까? 알 길이 없다. 설사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지냈더라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요 1:32-34).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독일의 잉게 숄(Inge Aicher-Scholl 1917 - 1998)이 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동생들인 한스 숄(Hans Fritz Scholl, 1918-1943 과 소피 숄(Sophia Magdalena Scholl, 1921-1943) 남매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스와 소피는 당시 독일의 뮌헨대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백장미단(White Rose)"의 중심인물 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치 정권의 비인간적인 불합리에 저항하며, 그들의 허위와 만행을 대중에게 고발하기 위해 활동하던 비폭력 저항 그룹이었습니다. 한스와 소피는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다 결국 게슈타포 나치 비밀국가경찰에 의해 며칠 지나지 않아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던 소피는 당시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 난 내면세계를 경험할 때면 작은 교회에 들어가 오르간 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녀가 삶의 질서와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형선고를 받기 전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것을 대신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태양은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형 직전 그녀의 부모가 면회를 와서 엄마 닥달레나 (Magdalena Scholl 1881-1953)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짧지만 강렬한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인하게 하는 명언이었습니다.

엄마가 소피에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를 잊지마라 그러자 소피가 응답합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또한 잊지마세요." 1943년 2월 22일 오후 5시, 그녀는 오빠 한스와, 또한 함께 백장미단을 결성했던 크리스토프 프로스트(Christoph Probst, 1919-1943)와 셋이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때 소피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똑같은 이슈로 나찌에 저항하며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다 붙잡혀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했던 본 훼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를 기억합니다.

그는 처형 직전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결정체인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겼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안템 가운데 마크 헤이스(Mark Hayes, 1953-)가 작곡한 "넉넉히 이기느니라(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 어떤 조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어조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담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당시 모든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인 로마에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알고 로마에 들어가기 전 로마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교과서처럼 정리한 것입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유언장처럼 심혈을 기울여 쓴 중심 내용이 이 안템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념을 통해 한스, 소피 남매, 그리고 본회퍼는 그들이 외치는정의와,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있었던 것입니다.

작곡가 마크 헤이스(Mark Hayes, 1953-)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리듬, 오스티나토 기법 (Ostinato - 같은 형태의 리듬과 선율을 지속해 가는 음악기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연신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깊이에 빠지게 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하며 가사가 주는 깊은 의미를 강렬하게 가슴에 담게 합니다. 마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처럼 이 곡은 복음의 혁명가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김기석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길입니다."라고 쓴 말에 깊은 동의가 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비록 내게는 한 달란트가 되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홈쇼핑월드 새봄맞이 깜짝감짝 세일!!

SALE

세일 기간 : 2024.2.9(금)-2.12(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9500.00~~
$4490.00
(일시불)

금주의 원가 및 원가이하 세일!!

고급 위생
비닐장갑
200매
~~$4.99~~
$1.49
*1인 5세트 한정



영신건강
유기농 꿀가루
~~$4.99~~
$1.99
*1인 5팩 한정



생활감동
세제혁명
(다목적 세정제)
~~$7.99~~
$3.99



옛날
짱아찌 각각
명이나물, 마늘쫑, 샐러리, 깻잎, 고추
~~$9.99~~
$4.99
*1인 5세트 한정



바다로 21
도시락김
16봉
~~$9.99~~
$4.99
*1인 10세트 한정



한국산
100% 볶은 아스파라거스 차
~~$16.99~~
~~$9.99~~
$4.99



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_소_시니어
2kg_연어_시니어
~~$29.99~~
$19.99



기적의 명약
산삼환
10환
~~$69.99~~
~~$49.99~~
$19.99
*1인 5세트 한정



지리산 도라지
홍삼청
500g
~~$69.99~~
$49.99



동원
6년근 홍삼 에브리원 스틱
1개월분
~~1박스: $79.99~~
$99.99 (1+3)
(4박스: $99.00)



기적의
안심당 110
~~$99.00~~
~~$69.00~~
$49.00



보토 코리아
에어 프라이어
5.0 QT (검정, 베이지)
~~$99.99~~
~~$89.99~~
$59.99



안동농협
고춧가루
1.0kg
~~$69.99~~
$69.99



WOW 홈쇼핑월드 신제품 및 재입고 대박세일!!

마유나라
청정 제주 마유비누
~~$9.99~~
$4.99



인산가
알칼리 죽염 (과립)
280g
~~$39.99~~
$19.99



마유나라
청정 제주 마유크림
(무향 or 향)
~~$49.99~~
$24.99



강화홍삼 원조
녹용홍삼 프리미엄 골드
60포 (2개월분)
~~$180.00~~
~~$120.00~~
~~$85.00~~
$65.00
*3박스 구매시: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농축액
240g
~~$189.00~~
~~$149.00~~
$100.00



*사은품: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더블진액
$119.00



(1개월분)

*사은품: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강준민 칼럼

작은 것의 힘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부목회자로 일하던 때 들었던 가슴 아픈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들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성장 과욕"이라는 평가입니다. 처음에 그 평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욕"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성장 과욕"이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목회자가 많은 데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장과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때, 제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서른 살에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체념한 것처럼 살아갔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나이를 상당히 먹은 지금도 한결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배웁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울수록 더욱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냉소주의입니다. 성장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노력의 배신》, 《성실함의 배신》, 《실력의 배신》, 《긍정의 배신》, 《공감의 배신》, 《배움의 배신》, 그리고, 《열정의 배신》입니다. 제가 찾아낸 책 제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이라는 이름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 여정에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멘토링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은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고 경험한 성경적 성장의 원리, 형통의 원리, 변화의 원리,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원리를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심(野心)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야심을 사전에서는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으뜸이 되고 싶은 야심을 드러낸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야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야심의 동기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야심을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야심이 섬김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야심은 에너지입니다. 야심은 욕망입니다. 야심은 소원입니다. 야심은 갈망입니다. 야심은 발전하고 싶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고 싶은 열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야심이며, 누구를 위한 야심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시했을 때 그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 역시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과 함께 다른 분들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바로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의 도구가 되는 책을 추천하고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의 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는 찾아온 손님에게 자신이 만드는 조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녀간 이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조각상을 보면서 "사소한 손질만 하셨군요."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겠죠. 그러나 사소한 손질을 해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완성이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예술가들은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탁월함을 추구한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은 영원의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구봉주 칼럼

탈인간화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탈인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수준을 능가한다 넘어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깃든 문화와 가치와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겉 모습 뿐 아니라, 속, 즉 마음과 생각을 급속도로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얕고, 충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의 컨텐츠는 배우 강렬하고 단순합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도 전개가 매우 빠릅니다. 유튜브 컨텐츠는 갈수록 짧은 시간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 컨텐츠를 보다가 조금만 지루하면 채널을 돌려 버릴 정도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예배, 즉 설교와 찬양 기도 시간을 지루해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고를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인간 본연의 덕스러운 모습인데, 탈 인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피씨를 끼고 살아갑니다. 처음 태블릿 피씨가 나왔을 때는 과거 오래 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TV보는 일을 제한했던 것처럼,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사회성이 갈수록 결핍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공원에 가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즘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라고 하면,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셀폰과 컴퓨터를 친구삼아 살아온 십대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사회생활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하이스쿨 12학년이 되면, 입시준비가 끝나고, 흔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조차 해내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게 맞지 않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파트타임 일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있습니까?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냥 맘에 안 들면, 아무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희생, 헌신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인간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인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탈 인간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전환도 일종의 탈 인간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성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꼭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자로 살 의무가 있느냐?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남성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여성이라고 믿으면 여성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니, 탈인간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 본연의 모습과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 함양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흐르는 모든 문화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일납니다. 탈인간화, 즉 인간 본연의 모습을 벗어난 문화는 결국, 기독교적 가치관과 반대이므로,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뿌리 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 신념 가치관에 탈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인간 본연의 정과 정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자신을 긴장하여, 깨어 있어 자신을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이상적인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5)

〈서울의 봄〉, 5·18 칭송 위한 과도한 역사 왜곡



12·12 군사반란 당일의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화 〈서울의 봄〉.

韓 5.18과 비슷했던 中 천안문 항쟁
공산 정권 유지로 기억에서 사라져
세계 냉전 종식, 韓 군부 독재 마감
우리 힘만으로 민주화 이루지 못해

◈민주화 투쟁의 명암: 5 · 18 민주화운동 성패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

영화 〈서울의 봄〉이 전두환 보안사령관 일파를 극악한 범죄집단으로 그려내는 결정적 요인은 사실 12·12 군사반란 자체보다는 약 6개월 뒤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일 것이다.

이때 전두환 일파는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다. 광주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관점으로도 변호할 수 없는 악독한 범죄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군을 움직여 학살을 저지르도록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폭거였다.

12·12 군사반란은 비극으로 귀결된 5·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따라서 광주에서의 비극에 희생당한 이들에게 동정적인 입장에서는 12·12 군사반란이 악의 씨앗이 심긴 사건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영화 〈서울의 봄〉이 정승화-장태완 일파를 참 군인으로까지 묘사하면서까지 전두환 일파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태도가 심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주의 일이 남긴 깊은 심리적 상흔이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낳은 데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상 5·18 민주화운동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의 정치적 투쟁과 승리로 치장하곤 한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국가 외부의 국제정치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일 1980년대 말 공산권 붕괴라는 세계사적 대변혁이 없었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슬그머니 은폐된 비극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는 이유는, 비등한 예가 바로 인접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1989년 발생한 중국 천안문 6·4 항쟁은 여러 측면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당시 중국 사회는 덩샤오핑의 자유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그리고 국민 교육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베를린 장벽 철거와 소련 내부의 혼란을 필두로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자, 중국에서도 공산당 일당독재의 철폐를 바라는 이들이 급증했다.

이에 중국의 대학생과 지식인, 대도시 화이트칼라 노동자 계층이 힘을 합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은 5·18 민주화운동 이상으로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 시위대와 진압군을 합쳐 사망자가 최소 1,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타국으로 망명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독재정권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 독재정권은 중국인들로부터 천안문 사태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정보통제가 30년 넘게 지속된 결과,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당시 직접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천안문 사태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민주화 투쟁의 성패: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한 5 · 18 민주화운동 칭송

한국은 중국과 경우가 많이 달랐다. 우선 외부의 군사독재 정권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다시피 할 만큼 깊게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처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언제까지나 묵살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든 전두환 정권이든 미국을 리더로 삼는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의 인정과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미국은 카터 행정부의 연이은 실정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1981년부터 8년 동안 미국 행정부 수반을 맡은 레이건 대통령은 1970년대의 데탕트를 아예 허물어버릴 정도로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인물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역할은 자체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소련·중공에 맞서 일본과 태평양의 군사적·사상적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낙점된 덕분에 쿠데타를 통한 군사독재를 감행했어도, 그리고 광주에서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어도 별 탈 없이 7년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소련 체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냉전이 끝나려는 기미가 보이면서, 그동안 미국의 묵인 아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세계 각국 군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힘을 잃고 문민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수순을 거치게 되었다. 공산권 붕괴는 곧, 냉전 당시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반공의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동안 반공, 반사회주의 기치 아래 유지되었던 여러 군사독재 정권들은 더 이상 미국의 암묵적 승인이나 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덕분에 이 시기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 하에 있던 남미 여러 군사독재 국가들(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었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군사독재 정권이 명분과 국정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런 거시적 정황은 국내에서 1980년대 내내 이어져온 대학가의 민주화요구 시위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그 결과 6·29 민주화선언이 공표되고 직선 투표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뤄졌으며, 5공 청문회가 성사되어 5·18 민주화운동이 다시 재조명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미국을 수장으로 삼는 자유민주 진영의 냉전 승리가, 천안문 6·4 항쟁처럼 완전히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묻혀버릴 지도 몰랐을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되살려냈다.

그렇지만 통상 국내 언론과 미디어에서 그토록 우리 민족의 자체적 민주화 열망이 이뤄낸 쾌거라며 칭송하는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모두, 실은 거시적 국제정세의 격변이 아니었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이는 1945년의 8·15 해방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일이 아니고, 덕분에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 버렸던 3·1 독립운동과 그 외 여러 독립을 위한 몸부림들이 재조명될 수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민족 자존심을 살리려 이런 저런 역사적 성과들을 다 우리 민족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엄밀하게 바라본 우리 현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상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진보 상당 부분이 외세에 의존하면서 국제정세에 이리저리 편승해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천안문 6 · 4 항쟁 당시 장면. 5 · 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정보통제로 인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 역사적 의의마저 완전히 망각되어버린 사건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진보가 전부 순수하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우리 민중에 의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기는 편협하고 국수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우리는 12·12 군사반란과 그로 인해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자체적으로 방지하고 우리 나름의 민주주의를 일궈나갈 정치적·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으나, 전두환 일파와 같은 '악질적이고 반민족적인' 이들에 의해 순간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념이 영화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문민 민주정권 수립은 1980년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아직 시기상조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직후 대한민국 통치구조는 그 이전 2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군부독재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라 전체가 군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민간 정치지도자들이 문민 통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진석호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보화를 찾는 기쁨의 시간으로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화를 추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6월 2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9:00
▪장소 : 주찬양교회 (2525 W. 8th St. #205., LA, CA 90057)
▪문의 : T.(213)434-9191 진석호 목사 (sukhoj@gmail.com)
(누구나 참석 가능. 회비 없음)

주찬양교회

공상현씨를
찾습니다

Denver Co에서
신학을 하기 위해 LA로 이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덴버 사시던 공상현씨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호간에 아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213)310-1800
김 바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 가장 쉽고 유일한 선택이다



용서를 선택하라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 | 스데반 황 | 역 | 생명의말씀사 | 256쪽 | 16,000원

**우리에게
어떤 악이 저질러졌든 간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래의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한을 품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붙드는
것이다.**

**'낸시 레이 드모스' 라고
알려진 그녀는 10여 권의
저서를 펴낸 작가이며
유명한 성경 교사이다.
'Revive Our Heart(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소서)' 와
'True Woman(참된 여성)'
운동을 통해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마음의 소생과
성경적 여성상을 일깨우고
있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지극히 합당한 일은 심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다.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가볍게 던지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죄책을 피해자가 갚겠다는 의지적 선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당위성도 떨어진다. 죄를 선택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피해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응이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사랑' 혹은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은 그분을 반역한 이들의 죄를 독생자에게 대신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온전히 확증되었다.

낸시 드모스 월게머스는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세움북스, 2023)〉이란 책으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저자다. 그 외 번역된 책들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에서 그녀가 보여준 성경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신자가 쉽게 속는 세상과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박하는 탁월한 접근은 오랜 세월 왜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월게머스 출판사의 사장이자 작가인 그녀의 남편 로버트 월게머스는 〈남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란 책을 썼다. 그 책의 번역도 기대해 본다.

〈용서를 선택하라〉에서 낸시 월게머스는 먼저, 상처를 인정한다.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은 실재이고 충분히 아프고 괴로우리라는 데 공감한다'라고 말한다. 용서는 상처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바른 반응의 결과로 선택하는 것이 용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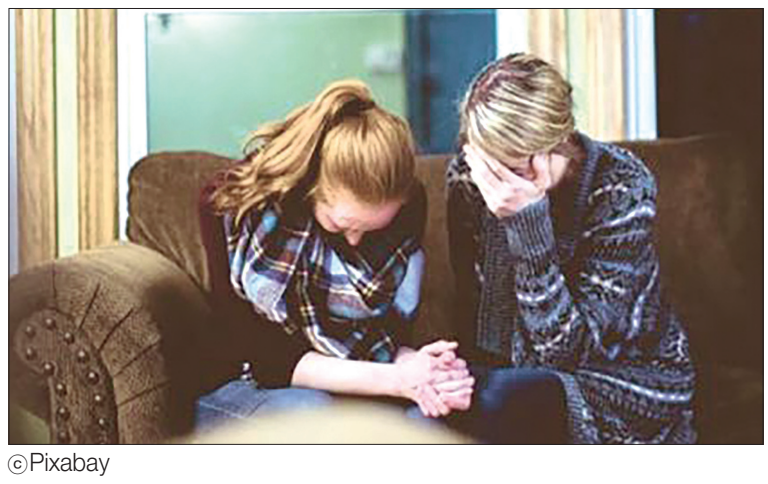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도록 빚 독촉자가 되어 닦달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여 회복과 화해를 맛보는 것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을 되찾는다.

저자 월게머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 상처가 된 행동 하나 때문에 쓴 뿌리가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 책을 통하여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사례를 자주 인용한다.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용서가 상대적으로 쉽거나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용서로 반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

낸시는 용서를 거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고 주는지 설명한다. 자기 삶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항상 가득 차 있다. 완고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 악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떠안고 살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유일한 처방은 바로 용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라고 말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헤아려볼 때, 우리의 용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 된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만큼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Pixabay

예수님은 그래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다.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6조 원과 5백만 원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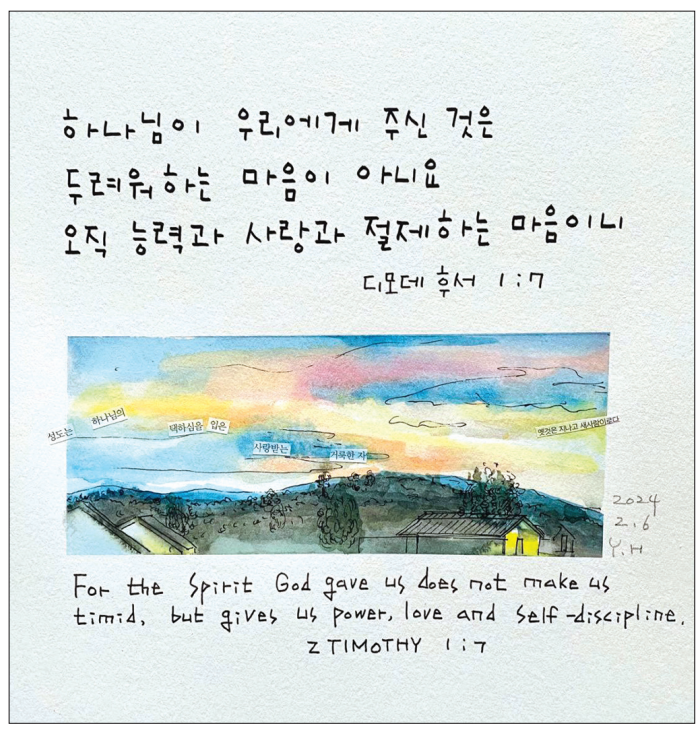
사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진토에 불과한 사람의 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큰 죄의 빚을 탕감(용서) 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고 우기는 것은 풍성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기로 삼거나 다른 이에게 누설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 특히 상처 준 자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완전히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순수한 피해자처럼 만들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강력한 지금,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선택할 때, 이것보다 더 복음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낸시 월게머스의 〈용서를 선택하라〉를 통해 많은 독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이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용서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2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정완 〈뜻으로 본 성경읽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죄가 늘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현실은 촘촘히 얽힌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회개는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다윗은 암논의 행위에 대해 분노했었다(삼하 13:21).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사실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부도덕한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때 다윗은 회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도 촘촘히 얽힌 미래를 보지 못했다. 현실만 보고 대충 넘어가길 원했다. 이제 다윗의 죄는 촘촘히 얽혀 압살롬에게로 넘어간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위해 분노하였고 암논을 죽인다. 역대상을 읽으며 정말 안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록 범죄한 존재들이지만, 결국 역대상에 기록하지 않은 허물과 죄에 대한 기록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의 기록들이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 기도회 3월 3일 개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 기도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6일(화) 오전 11시 열렸다.

한미 연합 기도회는 오는 3월 3일(주일) 오후 6시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리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나서 강연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인호 목사(성시화운동 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 진행되었고, 김경진 목사(공동회장/기쁜우리교회)가 개회 기도를 하고, 송정명 목사(공동 대표)가 기자 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송정명 목사는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전쟁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4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의 진로가 좌우 될 대선이 그리고 연방의원, 각 지방이 시의원 선거도 11월에 열린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모여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참가자들을 소개를 하고, 진유철 목사(공동 대표/나성순복음교회)가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나선 김재권 장로(이사장)는 이지성 작가(1만 Km의 저자) 초청 강연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 기도회가 오는 3월 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3월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제50주년을 맞이해 이영훈 목사가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특별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홈쇼핑월드, 로봇 맛사지 체어 미주 독점 판매권 계약



홈쇼핑월드와 바디 프랜드 미주지사가 로봇 마사지 체어 미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대표 릭김)와 바디프렌드 미주지사(법인장 김창주)가 신개념의 로봇 맛사지 체어 FALCON(팔콘)의 미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릭김 홈쇼핑월드 대표는 금년 1월초에 열렸던 라스베가스 CES쇼에서 바디프렌드와 FALCON맛사지 체어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에 바디프렌드 미주지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분 600대(40피트, 14컨테이너)의 결재를 완료했다. 이번 계약은 바디프렌드의 신제품 FALCON 맛사지 체어의 신개념 "휴먼패트"(디자인과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함)의 제품을 광고 및 마케팅 전문인 홈쇼핑월드가 함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바디프렌드 FALCON 맛사지 체어는 미주 독점판매처인 홈쇼핑월드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김태희, 비 부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의 인지도 높은 광고로 세계판매 1위를 차지한 바디프렌드이 주력 상품이며, 특히 1천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한 FALCON 맛사지 체어는 두 다리가 독창적으로 구동되는 로보 워킹 테크놀리지를 접목한 과학적인 맛사지 체어이다. 많은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코어근육, 전신, 하체 스트레칭, 사이클모드 등 다른 맛사지 체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8가지 로보 모드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기존보다 움직임 폭이 더 넓어졌고 속도도 2배 빠른 다리모터를 적용했다. 맛사지 체어를 이용하면서 부위별 케어와 헬스케어 및 음악과 함께 하는 멘탈케어, 몸 상태에 맞춰 맛사지 하는 매일케어 등 27개 자동 맛사지 프로그램을 추가 적용했다. 바디프렌드 FALCON 맛사지 체어는 두 다리 안마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형태의 맛사지 패턴인 '로보 워킹 테크놀리지'가 기술을 탑재했다.

홈쇼핑월드(대표 릭김)는 바디프렌드 미주 판매가격($9,500) 보다 5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맛사지 체어의 거품 가격을 완전히 걷어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선 기자

홈쇼핑월드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전화: 213- 380-3330).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목사)는 사순절(2월 14일~3월 28일)을 맞아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다. 325년경부터 기독교는 사순절을 지켜왔다. 이 기간에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 닮기를 사모한다. 월드쉐어 USA는 이 사순절에 하루 한끼 씩 금식하며, 금식으로 모은 헌금으로 극빈국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혼을 살리는 빵과 말씀 나누기를 실천한다.

월드쉐어 USA는 매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수천명에게 구체적인 복음제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과 빵으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순절 신앙 수련을 마친 아동들을 위한 부활절 축제예배를 지원한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다. 요컨대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 프로그램이다. 2024년 사순절에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교회가 동참하기도 하고, 개인이 동참하기도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한 비용(3불 x 40일, 총 120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으로 극빈국 고아들과 전쟁 지역 전쟁고아들을 섬기려 한다. 수혜 아동들은 음식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축복된 기회가 되고, 동참하시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경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캠페인을 소개했다.



월드쉐어는 지난 2023년에 사순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을 통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수리남 아동들을 음식과 물질을 제공했으며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나눔의 금식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개인은 월드쉐어USA(323 578 7933)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목사님! 성도님!

2024년 사순절은 나눔의 영성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으로 나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사순절 개요

시작일 : 2월 14일 ~ 종료일 : 3월 28일
(재의 수요일)



개인

전화(323-578-7933), 카톡(ID : Chanpkan1),
혹은 이메일(Kangtg1207@gmail.com)로 참가를 통보하고
매일 한 끼 금식을 실천하며 금식비를 월드쉐어 USA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

참가의사를 월드쉐어 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프로그램 안내를 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금식비를
월드쉐어를 통해 선교지로 보내면 됩니다.

월드쉐어 USA : 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극빈아동 자료와 전쟁지역 아동 정보 제공하고 후원금 전달합니다.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Kangtg1207@gmail.com